

실력양성운동과 인촌의 길

주익종(낙성대경제연구소)

한국사학계의 독립운동사 인식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3.1운동과 초기 임시정부 이후의 독립운동으로서 폭력 무장투쟁만 꼽는다. 다음 7가지다.

표1) 교과서상 초기 임시정부 이후의 독립운동

독립운동	비고
① 무장독립전쟁(김좌진, 홍범도의 청산리 전투, 봉오동전투) ② 의열투쟁 - 의열단, 한민애국단 ③ 국내 민족유일당 신간회	1920년대 혹은 1930년대 초
④ 혁명적 노동조합, 농민조합 운동 ⑤ 만주지역의 항일유격투쟁(양세봉, 김일성 등) ⑥ 중국 관내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김원봉) - 조선의용군, 독립동맹(김두봉) ⑦ 임시정부와 광복군	1930년대 이후

우선, 한 눈에 봐도 편파적이다. 국제정치에 참여해서 독립 기회를 찾은 외교독립운동과 식민지 한국 내에서 전개된 실력양성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로, 일제에 대한 항거면 다 좋다는 식이며 각 독립운동의 지향점에 무관심하다. 193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인 ④~⑦ 중 오직 하나 ⑦을 빼곤 모두 공산주의 계열이거나 그에 동조적이었다. ④~⑥은 북한 공산정권 수립으로 귀결되었으니, 결국 독립운동사를 가르친다 하면서 남의 집, 아니 나의 원수의 집 이야기를 내 이야기인양 가르치는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사를 중심으로 배우는 게 당연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실력양성운동

실력양성운동은 교육과 산업을 통해 장래 독립을 위한 역량을 키우려 한 독립운동이다. 기원은 구한말 계몽운동에 있었다. 러일전쟁 후인 1905년 일제가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

치해 내정까지 간섭하면서 고종의 전제 공포정치가 끝났고, 백화제방(百花齊放) 시대가 열렸다. 시대사조는 문명개화와 자강, 사회개혁, 신국가건설 등이었고, 계몽운동이 펼쳐졌다. 그중에서도 힘을 길러 장차 국권을 회복하자는 자강운동이 대두했다. 1907년 수립된 신민회가 대표적이었다. 청일전쟁 후 서울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평양에 돌아가 독립협회 지회 활동을 한 안창호는 1907년 평안도와 황해도, 서울의 인사들을 규합해서 비밀결사 신민회를 만들었다. 신민회는 국내에선 교육과 산업을 진흥하고 해외에선 무장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통해 장차의 독립역량을 기르려 했다.

안창호의 수제자 격인 이광수는 한일합방 무렵 실력양성운동의 대표적 구현 사례인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체험한 닭싸움의 일화로 실력양성론을 설명한 바 있다. 이광수는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교주 목사집의 수탉에게 자기집 수탉이 쪼이고 암탉까지 빼앗기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자기 수탉에게 쇠고기와 구리가루를 먹여 힘을 기르게 한 후, 싸움을 붙여 마침내 교주네 수탉을 이기게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날 쇠고기 한 근과 구리가루 두 돈쯤 어치를 먹고 며느리발톱을 날카롭게 갈아서, 바다 건너에서 온 일본 수탉을 물어뜯어 이기는 길뿐이다. 쇠고기와 구리가루란 다음 아닌 교육과 산업이다.”

실력양성운동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 일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평양에선 한국인 수중에서 메리야스공업과 고무공업이 발달했으며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확산되고 개신교 계통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 교육기관이 다수 성립했다.

실력양성운동의 최고 실천가- 고창 인촌 김성수 일가

하지만 당대의 가장 뛰어난 실력양성운동 실천가는 호남의 대지주 인촌 김성수, 수당 김연수 일가였다. 김요협(1833~1909) - 기중(1859~1933), 경중(1863~1945) - 성수(1891~1955), 연수(1896~1979) 3대에 걸친 조선 굴지 대지주가로의 성장과 교육, 공업, 언론 사업의 실천은 전통 시대 조선인이 근대의 한국인으로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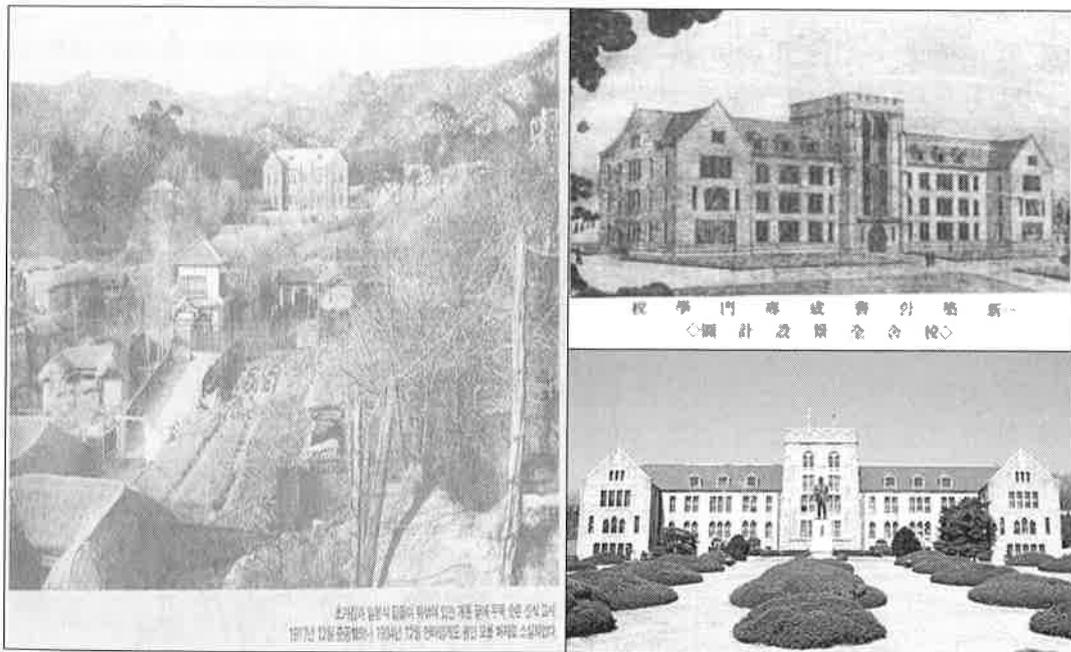
그림1) 고창 김씨가 가계도

전남 장성 출신의 김요협은 전북 고창의 재력가에 장가를 가서 근검절약으로 초기 재산을 모았고, 이후 두 아들은 소작료 수입의 재투자, 고리대, 지방관 역임 등을 통해 대지주로 성장했다. 기중 가는 1918년에 697정보(1정보는 3천평), 경중 가는 1924년에 1,916정보를 소유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이재에만 열중하지 않고 구한말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호남학회 활동에 참여했고, 신식학교도 세웠다. 김성수(1891년생)는 1908년 독일 유학해서 세이소쿠(正則)영어학교-진조(錦城)중학교-와세다대학교 예과.본과 정경학부(1914년 졸업)를 거쳤다. 동생 김연수(1896년생)도 1911년 독일 유학해서 일어학교-아사부중학교-제3고등학교-교토제국대학 선과.본과 경제학부(1921년 졸업)를 거쳤다.

김성수는 일본에서 실력양성주의에 공감하고(일본 따라잡기 catch-up), 훗날의 사업동지를 얻었다. 동향 출신의 송진우, 백관수 외에도 이강현, 현상운, 최두선, 이광수 등이었다. 김성수는 귀국 후 실력양성운동에 투신했다. 물론 그 부친 대에 축적한 재력을 투입하는 일이었다.

우선, 교육사업이다. 김성수는 1915년 중앙학교를 인수해 1917년 북악산 기슭의 새 부지로 옮겨 석조 2층 건물을 짓고 1921년 정규 중등학교로 승격시켰다. 1932년에는 천도교에서 경영하다 운영난에 빠진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후 역시 안암동 새 부지로 학교를 옮겨 본관과 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일신했다.



이 중앙고보와 보성전문학교에서 수많은 인재가 양성되었으며, 또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러 한국인 지식인들을 교사와 교수로 채용하였다. 중앙고보 졸업 후 경성방직에서 일하다 경성제대에 입학한 한글학자 이희승,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수석 졸업한 후 보성전문 교수로 재직하다가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등은 그 예다.

또 중앙학교는 3.1운동의 책원지(策源地)이기도 했다. 교주 김성수와 교장 송진우, 교사 현상윤이 월슨 14개조에 따른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던 중 도쿄 유학생 송계백의 내방을 계기로 천도교 측과 회합하여 이승훈 등 기독교 측까지 끌어들이어 만세선언을 조직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탑골공원에서의 학생시위까지 준비하였다.

둘째로, 김성수는 근대식 공업회사도 세웠다. 그는 1917년 한국 최초의 방직 기술자 이강현의 권유로 경성직뉴(주)를 인수했다. 본래 한복의 대님, 허리끈 등을 직조하던 경성직뉴에 소폭직기를 설치해서 소폭직물 직조를 시도했다. 그러나 1910년대 말 조선에는 회사 붐이 불었고 방직업에서도 일본인 업체로 1917년 조선방직(주)이 설립되었다. 김성수는 이에 아예 근대 방직회사를 만들기로 해서, 1918년부터 전국을 편력해서 유지들을 규합했다. 1919년 10월 납입자본금 25만원으로 경성방직(주)을 설립했다. 당초 김씨가 지분율은 14%에 불과했다. 28세 김성수, 31세 이강현, 34세 박용희 등 30살 전후의 청년들이 주역이었다.

비판자들은 김성수 일가의 지주경영 수익성이 떨어져서 공업 투자를 꺾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성수가 공업투자를 추진한 1910년대 후반은 쌀값 상승기로 지주경영의 수익성이 매우 좋았으며, 오히려 공업투자를 한 후 1920년 전후 공황이 와서 지주경영과 면방직 공업 모두 어려움에 처한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삼품(三品, 면화, 면사, 면포) 투기로 망할 뻔한 위기를 맞는다. 1920년 4월 공황이 덮치자 결국 자본금의 절반 이상인 총 13만 2,550엔 손실을 봤다. 이 좌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김성수가 집안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식산은행에서 8만 2천엔을 차입했고, 증자를 시도해 결국 동생 김연수가 25만엔을 들여 실권주를 매입했다. 김씨가 지분율이 65%가 되었다. 사업의지와 자금력을 가진 책임주주가 등장해서 지배구조가 안정화되었다.

영등포 1만 6천평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고(공사비 11만엔), 직기 100대 등 기계를 설치(11만 5천엔)해서 직포회사로 출발했다. 1923년 1월 조업을 개시했다. 1923년 3.9만필, 1926년 9만필, 1929년 19.9만필로 생산을 늘렸다. 시장으로서 서울보다는 경기, 북부 등 주변지를 공략했다. 한국인 상인 네트워크(포목상조합 등)를 활용했으며, 그 후 서울에 입성했다.

학습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생산경험 누적에 따라 직기 1대당 생산량과 직공 1인당 담당 직기 수가 늘어 노동생산성이 올랐다. 이에 제조원가가 낮아지고 필당 노동공임도 하락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 결과 1920년대에는 BEP 수준의 손익을 기록했다. 감가상각 감안 시 손실이었다. 이 점은 조선방직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면업 불황 때문이었다.

1930년대 식민지 한국에서는 전반적인 공업화 러시 속에서 면공업에 일본 대방적 자본이 진출(2개 회사, 4개 공장 건설)한 결과 수입대체가 완료되었다. 경성방직도 김연수가 경영을 맡으면서 방직공장을 설치해서 조선4대방의 일원이 되었다.

1937년 이후 전시체제기에 전시통제로 생산은 위축되었으나, 공정가격 덕분에 고수익을 올렸다. 전시체제는 생산업체들에게는 파듯한 온실이었다. 그러나 김연수는 안온한 온실에 머물지 않았다. 일제의 침략으로 확장된 제국으로 진출했다. 첫째로 경성방직의 자회사로 남만방직(주)을 설립했다. 이는 자본금 1천만 엔, 방기 3만 200추, 직기 1,129대, 종업원 1,300명으로서 경성방직보다 더 큰 회사였다. 또 삼양사는 만주에 6개 농장을 열어 소작경영을 시작했다. 총 규모는 3,822정보로서 역시 한국내 8개 농장 2,500정보보다 컸다. 셋째로 기타 삼림 개간 회사를 만들고, 호텔과 맥주회사를 인수했다. 이 '제국'에 대한 풀 베티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의 분출이라 할만 했다.

셋째로 김성수는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해서 1940년 일제가 강제로 폐간할 때까지 계속 경영했다.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은 3.1운동의 소산이었다. 3.1운동의 결과 한국인은 자신의 대변지를 갖게 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동아일보는 일제에 대해 '조선인' 본위의 정책을 실시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한국인의 이익을 옹호했다. 친일귀족실업인이 창간한 조선일보가 조진태-송병준-신석우-임경래-방응모 등으로 계속 사주가 바뀌며 오래 동안 경영이 불안했던 것과 달리 동아일보는 김성수 일가의 지속적 투자 덕분에 안정 속에서 한국인 지식인의 일대 보금자리 역할을 했다.

일제하에서 고창 김씨가와 같은 규모의 대토지를 소유했던 지주는 여럿 있다. 지주경영 외에 제대로 된 기업을 세운 지주가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하면, 교육과 산업, 언론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업을 건설한 인촌 일가의 업적은 단연 돋보인다.

대한민국의 Founding Fathers를 사수(死守)하자

김성수를 비롯한 유력 자산가, 지식층 출신의 민족주의자들은 1945년 해방 후 9월에 한민당을 결성했다. 이들은 좌익과 맞서 싸우며 이승만을 도와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송진우, 장덕수 두 지도자가 암살당하는 비극도 있었다. 이 점에서 실력양성운동은 바로 대한민국을 만든 독립운동으로서, 독립운동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980년대 민중사학에 감염된 한국사연구자들은 이후 집요하게 실력양성파를 친일파로 몰아, 독립운동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려 했고, 2000년대 노무현 집권기에 민관 두 차원의 친일파 단죄 작업을 통해 그에 거의 성공했다. 좌익은 실력양성운동이 기껏해야 타협적 독립운동이었을 뿐 전시체제기에는 일제에 협력하는 반민족활동으로 그 정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직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김성수와 김연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인물로 판정했다. 후속 조치로 보훈처가 김성수의 1962년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성북구는 고려대 앞 인촌로를 고려대로로 개명했으며, 고창군 역시 인촌로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본관 앞의 인촌 동상 철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표3) 김성수를 둘러싼 친일 논란

	김성수	김연수
1949 반민특위	해당 없음	반민족행위자 구속기소, 무죄 판결
2009 정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 건국훈장 서훈 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2009 친일인명사전	친일인물	친일인물



그림3) 고려대에서 벌어진 인촌 지우기

그런데 김성수나 김연수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혹은 친일인물로 판정된 것은 그간 숨겨온 그들의 친일행위가 새로 드러나서가 아니다. 그물망이 넓은 그물대신 좁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작은 물고기까지 잡히듯이, 판정 기준을 바꾼 결과일 뿐이다. 김성수에 대해 당대에 친일 시비가 있었지만, 이는 좌익 측 공격일 뿐, 사회적 합의가 아니었다.

반민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대로 악질적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려 한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반민특위는 688명을 취급했다. 여기에 당연히 김성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대 제1의 기업가였던 김연수는 포함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성수가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인물이 된 것은, 노무현 집권기의 정부 위원회와 민간 위원회가 김성수가 포함되도록 행위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과하다.

일례로 일제하 관료로서 각기 반민족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인물로 선정되는 자의 기준을 살펴보자. 아래 표에서처럼, 반민법은 '군, 경찰의 관리, 관공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또는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반면, 친일반민족행위법은 '일정 직급, 계급 이상의 관리나 헌병, 경찰으로서 민족구성원의 감금, 고문, 학대에 앞장 선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보았다. 나아가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느 직급 이상의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자를 친일행위자로 판정했다. 각기 '악질적'인 자, '탄압에 앞장선' 자, '하수인'이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꾸면, 당연히 김성수를 친일인물로 판정할 수 있게 된다.

표4) 반민족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인물 개념 비교

	반민특위 조사대상 반민족행위자	노무현정부 위원회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물
정의	(제4조 6, 9항)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2조16항)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또는 준경의 헌병분대장 이상 또는 경찰간부로서 주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의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행위
key word	“악질적”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탄압에 앞장선”	“하수인”

김성수나 김연수가 일제말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당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았다. 건국기의 당대인들은 김성수를 친일파로 몰지 않았다. 아니, 김성수의 도움을 받은 이승만이 당대인들을 이끌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점에서, 김성수는 건국의 주역이었다. 김성수는 이윤영을 위해 종로구에 출마하지 말아달라는 이승만의 요청을 선선히 받아들여 영광스런 제헌국회의원 자리를 양보했다. 이승만은 그에게 초대 재무부 장관을 제안했으며, 제2대 국회는 1951년 그를 제2대 부통령으로 선출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후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었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임도 부정되었다. 50여년 전의 당대인들이 바보 멍청이라는 말인가. 이는 늦게 태어난 행운을 누리는 자들이 멋대로 기준을 만든 결과일 뿐인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노무현 집권기의 야당 한나라당이 그 법안 제정에 동의한 것은 완전히 정신나간 행위였다.

독립운동사에서 실력양성파를 지우면 대한민국은 정당성을 잃는다. 대한민국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세운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형편없는 대한민국은 “비타협적 항일운동가가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항할 근거가 없어진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투항해서 그 노예가 되는 연방제의 길이 필연적 수순이 된다. 실력양성파를 지우면 대한민국은 소멸한다. 김성수를 비롯한 실력양성파를 독립운동가로 되살리는 게 현하 전쟁의 또 하나의 전선이다.